塔坪里출토
蓮華紋 瓦當

金 和 英

I

최근 忠淸北道 中原郡 可金面 塔坪里 七層石塔① 주위에서 새로운 형식의 蓮華紋瓦當이 계속 수습되고 있어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塔坪里에서 수습되고 있는 蓮華紋 瓦當은 六葉 蓮華紋으로 한 줄의 굵은 테두리를 두른 子房에는 蓮子가 七顆 있고 六葉의 蓮瓣은 子房과 약간 떨어져 있다。蓮瓣의 형태는 瓣端 쪽이 약간 넓으나 끝은 뾰죽하면서 反轉이 있으며 蓮瓣 中央에 한 줄의 縱線이 돌기되어 蓮瓣을 둘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는 각 각 안으로 內曲되었다。蓮瓣과 蓮瓣 사이에는 間葉이 있어 重瓣과 같은 형태를 이루었다。높은 주연의 폭은 고르지 못하며 아무런 장식무늬가 없다。

이 종류의 蓮華紋瓦當이 학계에 알려지기는 一九七一年 여름부터이며 그 出土地가 公州郡 炭川面 부근에서 수습되었다고 전해졌다。② 이 瓦當의 周緣은 완전히 파손 되었으나 그 형태나 형식이 서울 廣壯洞에서 수집되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蓮華紋瓦當③과 흡사하므로 처음부터 百濟 蓮華紋瓦當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주목되었다。廣壯洞에서 수집된 蓮華紋瓦當은 같은 형태의 다른 예는 없었으나 수습된 경위나 출토지가 명확하여 百濟초기 瓦當의 전래과정이나 양식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百濟時代 蓮華紋瓦當의 연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扶餘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瓦當이 수습되었으므로 末期의 瓦當에 대한 편년이나 양식에 대한 계보는 가능하다。그러나 초기의 도읍지인 漢山 즉 오늘날 서울 근교에서는 두점의 蓮華紋瓦當이 수습되었고 公州에서는 많은 수의 蓮華紋瓦當이 수습되었으나 扶餘에서 발견되는 蓮華紋瓦當과 같은 형식이므로 百濟末期의 것으로 추정되어 公州都邑期에 해당되는 瓦當의 연구는 거의 공백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초기의 도읍지였던 서울 근교에서 수집된 두 점의 蓮華紋瓦當은 그 형태가 전혀 다르다。한 점은 高句麗 계통의 八葉 蓮華紋瓦當④이고 다른 한 점은 앞서 말한 北魏系의 八葉蓮華紋瓦當인데 각각 公州 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러나 百濟는 公州로 南遷한 후 특히 中國 南朝 梁과 활발한 교통을 하였으나 公州都邑期의 것으로 확실한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다만 宋山里 六號 塼築墳이나 武寧王陵 塼의 蓮華紋에서 公州都邑期의 蓮華紋 瓦當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그리고 公州都邑期는 百濟 末期의 화려한 百濟文化를 이루기위한 준비기로 보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렇게 전혀 공백 상태였던 공주부근에서 廣壯洞에서 수습된 瓦當과 흡사한 형식의 瓦當이 출토하였다고 하니 이런 瓦當이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그 출토지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 후 扶餘에서는 炭川面 부근에서 수습된 瓦當과 同形의 것이 가끔 눈에 띄기 시작했으며 그 출토지가 忠州라고도 하고 혹은 金生寺址라고도 했다。그러나 이들 六葉의 蓮華紋瓦當의 정확한 출토지는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 실시한 忠州 中原地區 古蹟調査⑤에 의해 中原郡 可金面 塔坪里 中央塔 부근임이 밝혀 졌고、中央塔 일대에서 똑같은 瓦當片이 여러 점 수습되어 檀國大學校 博物館에 수장되었다。

筆者는 이 六葉蓮華紋瓦當이 塔坪里 七層石塔 일대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瓦當의 형식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하게되었다。아울러 이 六葉蓮華紋瓦當이 과연 백제의 양식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忠州지방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塔坪里에서 수습된 遺物을 통하여 새로

운 검토를 한 결과 이 蓮華紋瓦當은 百濟의 양식이라기 보다 오히려 고구려 양식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忠州·中原郡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 보고 塔坪里에서 出土된 遺物을 通해 塔坪里寺址에 대한 연대 추정을 하여 六葉蓮華紋瓦當을 다른 곳에서 수습한 百濟·高句麗時代의 瓦當과 비교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Ⅱ

中原郡 可金面 塔坪里에는 七層石塔이 위치하고 있다. 이 石塔에 대하여는 여러 곳에 소개되었으나 塔 일대의 절터에 대한 기록은 高裕燮선생의 塔亭里七層石塔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⑦ 高裕燮선생의 「韓國塔婆의 硏究」各論草稿에서는

「現在의 塔 所在地點은 일찌기 寺院址였을 것이나 哀惜하게도 아무런 傳承을 남기고 있지 않다. 일찌기(考古學雜志第十五卷 第六號) 黑板勝美博士의 「朝鮮三國時代에 있어서의 唯一한 金銅佛」이란 小論에서는 이 塔 下에서 發見되었다는 金銅釋迦像 光背에 관한 說이 있었다. 即 그 光背의 銘에 「建興五年歲在丙辰」佛弟子淸信女上部」口奄造釋迦丈像生生世世口佛聞」法一切衆生 同此願」이라고 있다. 上部는 百濟 五部의 一이었으므로서 이것을 百濟 遺物로 해석하여 建興五年 丙辰을 威德王 四十三年 丙辰(隋 開皇十六年 五九六年)으로 추정한듯 하다. 그러나 此種의 小像은 移動하기 쉬운 것임으로서 이 寺院址의 來歷을 말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일도 있었던 것이다. 古蹟圖譜 第四冊에는 當 寺址에서 新羅統初의 蓮華紋瓦當의 發見을 傳하고 있다. 即 統初의 寺院의 創立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韓國塔婆의 硏究」에서는

「이 塔亭里塔이란 것을 筆者는 輿地勝覽 忠州 佛宇條에 보이는 金生寺란 것이 아닌가 한다. 勝覽에 「金生寺在北津崖」라 하고 이에 金生에 關한 說이 있고 끝에 「生修頭陁行居是寺 因以爲名」이라 있는데 圃隱集 卷二에 「送僧歸金生寺」란 것에 「縹渺金生寺潺溪月落灘 去年回使節 半日歸鞍花雨講經席 柳風垂釣竿 此身雖輦下 淸夢尙江干」이라한 것이 그 地勢가 近似한 까닭이다. 다만 金生은 景雲二年(聖德王十年) 生이라 하므로 一見이 金生寺는 그 以後의 것인 듯이 생각되기도 쉬우나 寺址에서 發見된 古瓦중에는 이 以前에 속할 양식들이 있음으로 보아 寺觀은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推測되며 따라 이로써 塔의 年代 등은 추정되지 아니하고 다못 寺址名을 알음에 그칠 따름이다.」

라고⑧ 하여 塔坪里 七層石塔 일대를 통일신라시대 절터로 생각하고 寺名은 金生寺로 추정하고 있다. 이 塔坪里 七層石塔은 新羅가 삼국을 통일 한 후 반도의 중앙에 세운 탑이라 하여 중앙탑이라 부른다. 그러나 塔 부근에서 수습된 瓦當片을 보면 그 시대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것이다. 高裕燮선생은 塔 아래서 발견된 建興五年銘 金銅佛像光背는 그 규모가 작아서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절 터의 내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으나 三國時代 蓮華紋瓦當이 塔 부근에서 수습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建興五年銘 金銅佛光背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塔이 세워지기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이미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裕燮선생은 圃隱集에 기록된 金生寺址가 塔坪里 일대의 지세와 근사한 까닭에 金生寺址로 추측하고 있으나 金生寺址는 檀大博物館의 古蹟調査 결과 金可面 游松里 반송부락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도 반송부락의 金生寺址로 추정된 곳에는 통일신라시대의 瓦片이 산재해 있다.

다음 이곳에 대한 歷史的 사실을 살펴 보면 塔坪里는 현재 中原郡에 속해있으나 원래는 忠州에 포함된 지역이어서 塔坪里 七層石塔은 忠州 塔亭里七層石塔이라고 소개되었고 또한 그렇게 알려졌다. 忠州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東國輿地勝覽 卷第十四 忠州 建置沿革條에

「本高句麗國原城　一云未城乙一云薍長城　新羅取之眞興王置小京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以實之…」

라고 있고 三國史記 卷第三十四 雜志第四 地理二에

「中原京。本高句麗國原城。新羅平之。眞興王置小京。文武王時築城。周二千五百九十二步。景德王改爲中原京。今忠州」

라 있으며 同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條에

「十八年以國原爲小京…… 十九年春二月。徙貴忙子弟及六部豪民。以實國原。……二十六年春二月。北齊武成皇帝詔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公新羅王。秋八月。命阿飡賦出守國原。……」

라 있어 원래 高句麗 땅으로 國原城 이라 불리었으나 新羅의 침략으로 眞興王때는 新羅의 영토로 편입되어 眞興王 十八年에는 小京을 삼고 十九年에는 貴戚의 자제와 六部의 豪民을 이 곳으로 옮겼으며 同王 二十六年에는 阿飡 春賦로 하여금 이 곳을 지키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三國史記 卷第三十七 地理四 高句麗條에 國原城이 있다。

원래 이 곳 忠州·中原 일대는 南漢江 상류로서 海運을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던 古代에는 교통상으로는 물론이고 그 위치가 반도의 중앙부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중요한 지점이었다。그러므로 삼국 정립 후 고구려에서는 남쪽 경략의 요새로서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고 新羅는 한강유역을 차지하여 북방경략의 요새로 중요시 하였던 곳 같다。따라서 三國은 忠淸道 일대에서 계속된 충돌이 있었음을 우리는 「三國史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史實을 통해 볼 때 國原城은 眞興王이 漢江유역을 점령하기 이전에는 高句麗 땅이었으며 眞興王 十八年(五五七년)에 小京을 삼았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이 일대가 高句麗 영토였던 下限을 五五七年 이전으로 생각 할 수 있다。五五〇년대는 三國時代 末期로 이미 三國은 文化的인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이다。忠州가 이와 같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면 三國 중 문화적으로 先進的인 위치에 있던 高句麗文化圈의 일부를 이루었을 것이고 眞興王 때 新羅의 영토로 편입되었을 지라도 高句麗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新羅文化가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佛寺 건축에 백제의 도움을 받아 皇龍寺 九層木塔을 세울 때 百濟의 기술자가 도래하였다는 일⑨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리고 慶州에서 수습되고 있는 三國時代 新羅 蓮華紋瓦當 중에서 백제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예가 비교적 많이 있다。대개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각기 도읍지에 거대한 규모의 호국사찰을 건립하는 등 주로 문화적인 활동은 도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도읍지에서 집중적으로 수습되고 있는 점은 공통되며 외래 문화의 요소가 가장 빨리 도입되는 곳도 역시 도읍지이다。그러므로 忠州 일대는 군사적인 면이나 국방상으로는 중요한 요새가 될 수 있었으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읍지였던 경주만큼 외래 문화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그리고 忠州가 新羅 영토로 편입되는 六세기 중엽이면 고구려는 이미 문화적인 면에서 난숙기에 접어들었을 때이다。高句麗의 거대한 사찰인 金剛寺가 文咨王 七年(四九八년)에 세워졌음⑩과 現傳하는 고구려 불상이 이시기에 만들어 졌으므로 미루어 대개 五〇〇年을 전후한 시기에는 독자적인 고구려 문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忠州가 新羅 영토로 편입된 때에는 이미 고구려의 文化圈은 특징있는 독자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었을 것이다。그러므로 변방이나 고구려의 영토였던 忠州에서는 고구려 문화권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며 新羅영토라 하였을 지라도 국경 너머 백제문화의 영향을 짙게 받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忠州에서 발견되어 百濟時代의 遺品으로 추정되었던 建興五年銘 金銅佛像 光背가 高句麗시대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고⑪ 보면 塔坪里가 忠淸道에 속하며 忠淸道에서 발견되면 의례히 百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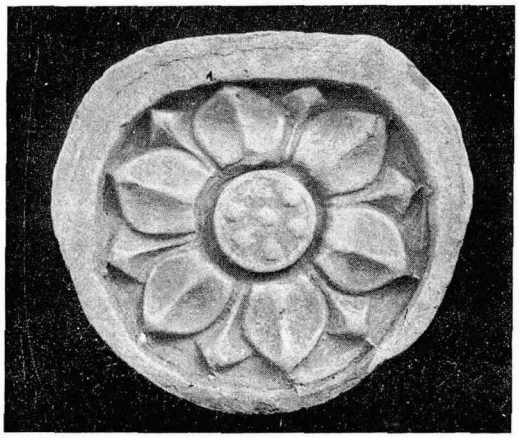
時代의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歷史的인 배경과 함께 塔坪里出土 蓮華紋瓦當의 양식은 재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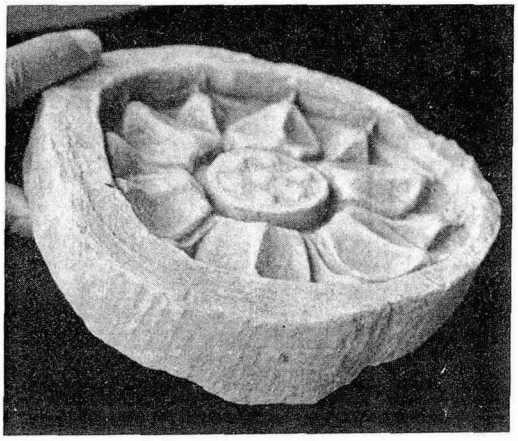
Ⅲ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塔坪里에서 출토되고 있는 瓦當의 시대는 三國時代·통일신라·고려시대이며 그 종류도 암막새·숫막새 등이 수습되었으나 本稿에서는 주로 많이 발견된 六葉 蓮華紋瓦當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다시 한번 六葉 蓮華紋瓦當(圖1)의 형태를 살펴 보면 子房은 그 주위에 굵은 테를 한 줄 두르고 蓮子는 자방 중앙에 하나 그 주위에 6顆 있는데 주위의 蓮子는 모두 蓮瓣의 중심 쪽에 있다。六葉의 蓮瓣은 子房에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 蓮瓣의 形態는 瓣端 쪽이 약간 넓어졌으나 끝은 뾰족하면서 反轉이 있다。蓮瓣中央에는 한 줄의 縱線이 돌기되어 蓮瓣을 둘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는 각각 안쪽으로 內曲되었다。蓮瓣과 蓮瓣 사이에는 蓮瓣 형태의 間葉이 있다。周緣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無紋이며 그 폭은 고르지 못하고 측면에는 짚으로 누른 흔적이 보인다。(圖2)



(圖1) 六葉 蓮華紋 瓦當



(圖2) 上瓦當 側面

실측치는 子房 지름이 四~四·五cm、蓮瓣幅은 三·三~三·七cm、蓮瓣 길이는 三·五~四·五cm、周緣幅은 〇·九~一·三cm로 그 크기는 瓦片에 따라 약간 씩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형식 즉 子房에 蓮子의 수와 배치 六葉의 蓮瓣의 형태 無紋의 周緣은 모두 공통이다。

이 형식의 蓮華紋瓦當은「朝鮮古蹟圖譜」에서는 統一新羅時代의 유적과 遺物로 塔坪里 七層石塔과 함께 두 점의 와당 파편이 소개되어 있고「百濟瓦塼圖譜」에는 百濟時代의 것으로 소개되었으며「박물관신문」에는 瓦片이 발견된 상태만 도판으로 실었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百濟瓦塼圖譜」에서는 그 출토지가 公州炭川面이라는 점과 그 형태가 廣壯洞에서 수습된 八葉 蓮華紋瓦當과 흡사하여 百濟초기의 蓮華紋瓦當으로 추정하였다。朝鮮古蹟圖譜에서는 統一新羅時代로 간주하였으며 高裕燮선생 역시 統一新羅時代로 추정하였다。그러나 筆者는 이 瓦當을 高句麗系統으로 추정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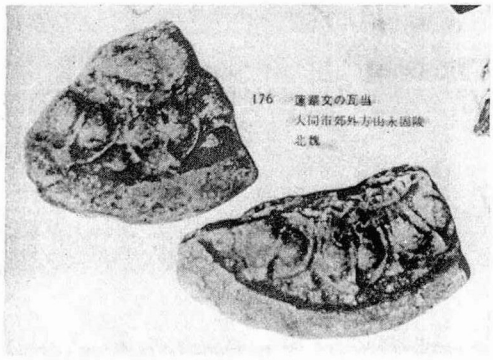
塔坪里에서 수습된 六葉 蓮華紋瓦當은 서울 國立中央博物館、黃壽永선생、梨大博物館、檀國大博物館、忠北大博物館、淸州 李在俊氏와 金正根氏、忠州의 金豊植氏가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瓦當은 一九七二年 여름 큰 수해시 塔주변의 사지가 수몰되고 집도 떠내려 가면서 많은 瓦片이 출토되어 수습되었다고 한다。특히 檀大博物館에 수장된 瓦當片은 現地 답사에서 수집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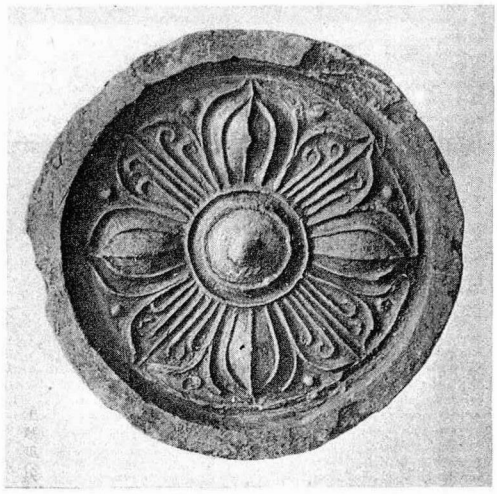
이고 李在俊氏의 瓦當도 수해 후 현지에서 수습한 것이라 한다.

이들 瓦當이 수습된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형식이 같아서 一見하여 한 곳에서 수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瓦當에 대하여 특히 주목하는 점은 六葉 蓮華紋이라는 점과 蓮瓣 자체의 형식이다.

六葉 蓮華紋 형식을 살펴보면 三國時代 고구려·백제·신라 각국의 瓦當중 몇 점씩은 六葉蓮華紋의 예가 있다. 고구려의 경우 蓮華紋瓦當은 四葉·六葉·八葉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四葉은 초기의 형식으로 그 예가 희귀하며 六葉 역시 드물고 高句麗의 蓮華紋瓦當의 기본형식은 八葉이라 하겠다. 백제는 六葉과 八葉의 蓮華紋瓦當이 있으나 六葉은 百濟末期 부여의 扶蘇山이나 益山彌勒寺址에서 수습되는 숫막새와당과 椽木瓦가 있으며 公州나 扶餘에서 수습되는 百濟時代 蓮華紋瓦當도 八葉蓮華紋이 기본형식을 이루고 있다. 新羅의 경우 三國 중 六葉蓮華紋瓦當이 제일 많이 수습되고 있다. 慶州에서 발견되는 古新羅時代의 蓮華紋瓦當 중 전형적인 新羅時代의 蓮華紋瓦當은 六葉이며 百濟系나 高句麗系統은 모두 八葉이다. 따라서 六葉 蓮華紋瓦當이 제일 많이 발견된 곳은 新羅이고 三國중 六葉 蓮華紋 형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곳도 역시 신라라 하겠다.



(圖3) 塔坪里 出土 蓮華紋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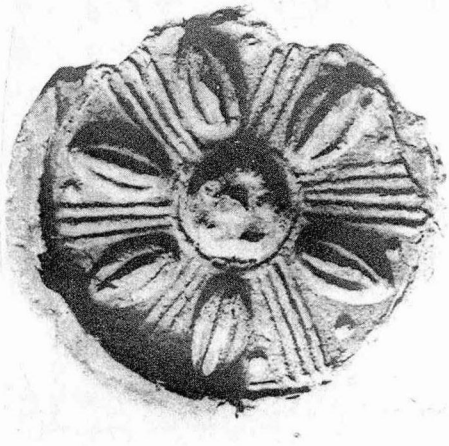


(圖4) 土城里 出土 蓮華紋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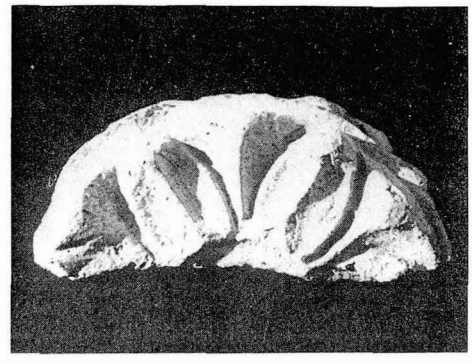
다음 蓮瓣 자체의 형태인데 塔坪里에서 수습된 蓮華紋 瓦當의 蓮瓣은 중앙에 縱線이 있고 蓮瓣 끝은 反轉되었으나 蓮瓣 가운데 부분은 융기되지 않고 내곡되었다. 蓮瓣의 윤곽도 瓣端 쪽이 넓어졌으나 그 끝은 뾰족하다. 윤곽만 보면 中國北魏의 複瓣形式의 蓮瓣 형태와도 흡사하며 (圖3) 土城里에서 수습된 高句麗時代 蓮華紋瓦當(圖4)의 蓮瓣과도 흡사하다. 百濟時代 蓮華紋瓦當의蓮瓣은 끝에 反轉이 있으나 윤곽은 둥글면서 끝부분만 약간의 反轉이 있고 끝이 뾰죽하드라도 塔坪里出土 蓮華紋 瓦當 만큼 뾰죽한 끝부분이 강조되지는 않았다. 土城里에서 발견된 蓮華紋瓦當(도4 참조)은 윤곽은 塔坪里出土 蓮華紋瓦當과 같으나 蓮瓣끝에 反轉이 없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윤곽만 가지고 보면 高句麗 양식보다 北魏의 양식과 더 가까운데 이런 형태의 北魏 蓮瓣은 複瓣蓮華紋의 형태이다.

다음 蓮瓣 중앙에 縱線이 돌기되었으나 그 가운데는 舌形돌기 대신 각각 內曲되어 複瓣의 蓮華紋과 반대되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蓮瓣紋은 廣壯洞에서 수습된 瓦當(圖5)에서 用例를 찾을 수 있으며 土城里에서 수습된 蓮華紋瓦當의 蓮瓣(圖4 참조)은 그 중앙에 한줄의 縱線이 있는 점만이 같으나 土城里에서 수습된 또 다른 蓮華紋 瓦當(圖6)은 蓮瓣의 윤곽선과 瓣 중앙의 縱線이 내곡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土城里에서 출토된 蓮華紋 瓦當은 대부분 瓣 中央의 縱線과 윤곽선이 돌기되어 그 가운데가 內曲되었지 塔坪里出土 蓮華紋瓦當처럼 蓮瓣의 끝 부분이 反轉되어 그 가운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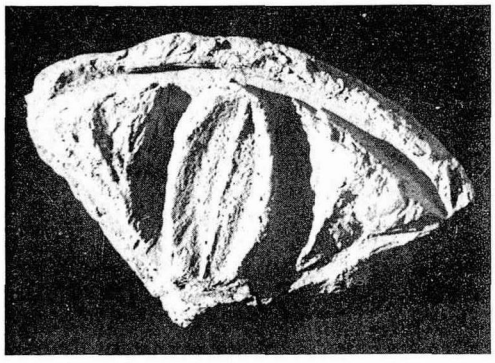
(圖5) 廣壯洞出土瓦當



(圖6) 土城里出土蓮華紋瓦當



(圖7) 塔坪里出土蓮華紋瓦當



(圖8) 塔坪里出土蓮華紋瓦當

내곡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데 塔坪里에서 수습된 蓮華紋瓦當의 蓮瓣 형태는 高句麗 蓮華紋瓦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인데 그중 한점(圖7)은 蓮瓣의 윤곽은 다르드라도 蓮瓣을 二分하고 그 가운데가 內曲된 것은 똑같으며 고구려 蓮華紋瓦當의 蓮瓣과 똑같은 형태의 瓦片도(圖8) 塔坪里에서 수습되었다。 따라서 蓮瓣자체의 전체적인 형태는 廣壯洞에서 수습된 蓮華紋瓦當과 같으나 그 윤곽이라든가 中央의 縱線 그 가운데가 內曲된 점은 土城里에서 수습된 蓮華紋瓦當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다음 間葉에 대해서 인데 蓮華紋瓦當에서 間葉이 있는 例가 三國時代에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區劃線이나 꽃술대가 蓮瓣 사이에 있고 아니면 蓮瓣과 蓮瓣이 붙어 있는 예가 많으며 蓮瓣의 중앙의 윤곽선과 같은 형태를 이루는 例는 매우 적으나 新羅나 百濟[13]의 蓮華紋瓦當에서 同例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塔坪里에서 수습된 三國時代 蓮華紋瓦當片(圖7·8참조)도 間葉이 없는 例가 있어서 間葉이 年代나 양식 추정에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음은 子房과 蓮瓣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점이다。 高句麗의 蓮華紋瓦當은 蓮瓣의 형태가 양 끝이 뾰족해서 인지 子房과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圖6 참조) 蓮瓣의 형태가 塔坪里에서 수습된 例와 같은 것도 子房 주위로 한 줄의 테두리를 두르고 蓮瓣이 밖의 테두리에 붙어 있는 例가 많다。(圖4 참조) 따라서 子房에 蓮瓣이 직접 붙어 있지 않고 거리를 두는 例는 高句麗

의 蓮華紋 瓦當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子房의 형태인데 塔坪里출토의 예는 약간 돌기된 큰 子房 주위에 굵은 한줄의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비교적 큰 蓮子 七顆가 있다. 이러한 子房의 형태는 百濟나 新羅末期 瓦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나 주위에 있는 6顆의 蓮子가 蓮瓣 中心의 돌기 쪽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의 子房이 고구려 瓦當에도 없지는 않지만 역시高句麗 蓮華紋瓦當 子房의 보편적인 특징은 융기된 子房에 蓮子가 그 中央에 하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子房은 高句麗系라기보다 百濟系에 가까우며 子房이 비교적 큰 점으로 보아 초기의 형식은 아닌 것 같다.[14]

마지막으로 周緣인데 周緣部가 남아 있는 瓦當은 전부 無紋으로 전혀 장식이 없다. 周緣이 無紋임은 이 瓦當이 三國時代에 만들어 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개 統一新羅時代가 되면 반드시 周緣에 장식 무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塔坪里에서 수습된 六葉 蓮華紋瓦當을 각 부분에 대하여 다른 瓦當과 비교하며 양식적인 고찰을 하였다. 먼저 蓮瓣은 그 윤곽이 中國 北魏나 고구려 蓮瓣의 형태와 비슷하나 蓮瓣 자체의 볼륨에서는 高句麗의 것과 통함을 알 수 있어서 北魏의 양식보다는 오히려 고구려적인 요소가 강함을 알 수 있고 塔坪里에서 高句麗系統의 蓮華紋瓦當 片이 두 점 출토한 것을 보면 高句麗系統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게 해 준다. 다음 子房의 형태는 百濟 蓮華紋瓦當의 例와 흡사하나 고구려에도 동형의 예가 전연 없는 것이 아니니 百濟의 예가 많다고 子房 하나만 가지고 百濟계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蓮瓣의 線이 날카롭고 예리하여 볼륨이 큰 점은 고구려 미술의 일반적인 특징과도 통하며 蓮瓣의 線이나 볼륨은 「延嘉七年銘 金銅弗立像」 臺座의 蓮瓣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蓮瓣이 子房에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양식도 고구려 蓮華紋 瓦當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塔坪里출토 六葉 蓮華紋 瓦當의 양식은 고구려 계통이라 할 수 있다.

廣壯洞에서 수습된 八葉 蓮華紋 瓦當과 모든 형식이 같으나 廣壯洞의 例는 八葉이고 蓮瓣의 線이 부드럽고 볼륨도 작아 형식화된 듯한 감이 있다.

Ⅳ

塔坪里出土 六葉蓮華紋 瓦當이 만들어진 시대는 三國時代 인것 같다. 우선 주연이 무문이라는 점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統一新羅時代 瓦當은 周緣에 무늬가 장식되고 子房주위에도 장식 무늬가 가해지는 것이 통례이다. 만약 統一新羅時代의 瓦當이라면 同形의 例가 塔坪里 일대에서 발견되어야 하나 단지 塔坪里 七層石塔 주위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三國時代에 조성된 것 같으며 三國期 新羅時代 六葉 蓮華紋瓦當(圖9)이 이 곳에서 發見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개 眞興王이 이 곳을 점령하는 시기를 전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六葉蓮華紋의 瓦當은 三國期 新羅에서 많이 만들어진 六葉蓮華紋 양식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三國期 新羅에서는 六葉의 蓮華紋 瓦當이 많이 만들어 졌는데 이들의 蓮瓣 중앙에는 한 줄의 縱線이 돌기되어 있으며 끝은 뾰족하지 않아도 瓣端 측은 넓어지고 있다. 皇龍寺에서 수습된 蓮華紋 瓦當은 八葉이나(圖10) 蓮瓣의 형태는 塔坪里에서 수습된 六葉 蓮華紋 瓦當과 흡사 하다. 따라서 塔坪里에서 수습된 六葉 蓮華紋 瓦當은 慶州에서 많이 수집되고 있는 六葉 蓮華紋 瓦當 양식의 규범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이 크고 선이 강하여 날카로운 것은 만들어진 곳이 高句麗의 땅이었으므로 그 영향을 받아서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六葉蓮華紋 양식의 瓦當이 塔坪里 七層石塔 주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百濟 末期의 것으로 益山 彌勒寺址에서만 수습 되는 六葉 蓮華紋 瓦當이 다른 곳에서 전혀 수습되지 않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점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塔坪里 출토 六葉蓮華紋 瓦當은 그 제작 시기가 비록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 일지라도 고구려 양식의 蓮華紋 瓦當으로 三國期 新羅시대 蓮華紋瓦當 양식의 규범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註〉

① 이 石塔은 國寶第六號 中原 塔坪里 七層石塔으로 지정되었는데「忠州塔亭里七層石塔」혹은「中央塔」이라고도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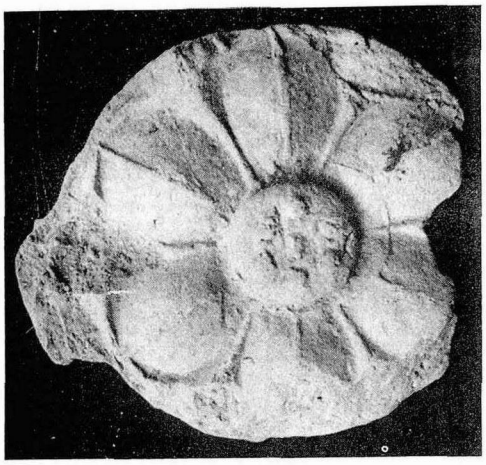
②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百濟瓦塼圖譜」圖版 3 참조

③ 金和英「三國時代 蓮華紋 研究」歷史學報 第三十四輯 圖17 참조
朴容鎭「百濟瓦當에 관한 研究」공주교육대학논문집 5집 도판 I 참조

④ 註2 圖版2 참조

⑤ 鄭永鎬「忠州·中原地區 古蹟 第一次 調査」박물관신문 47호, 국립중앙박물관刊

⑥ 杉山信三「朝鮮の 石塔」P. 九八, 一〇〇, 二一四 참조



(圖9) 六葉蓮華紋瓦當

高裕燮「韓國塔婆의 研究」乙酉文化社 一九四七

文化財管理局「文化財大觀」國寶篇 P. 一〇〇 참조

高裕燮「韓國塔婆의 研究」各論草稿 P·P. 89—94 考古美術資料 十四集 一九六七

⑦ 高裕燮(一九六七) P·P 89—94 참조

⑧ 高裕燮(一九四七) P. 一二五註七八 참조

⑨ 三國遺事 卷第三「皇龍寺九層木塔」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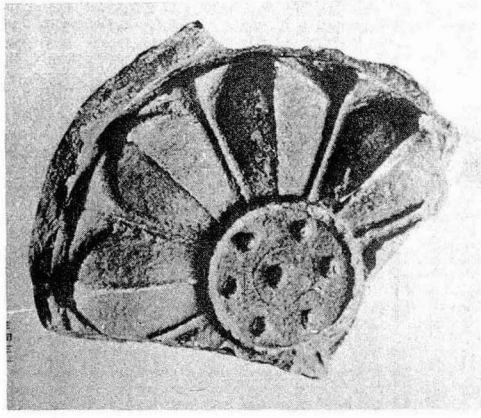
⑩「三國史記」卷第十九高句麗 本記 第七 文咨王條에「七年……秋七月 創金剛寺」라 있다.

⑪「百濟文化의 성과와 방향」웅진 천도 一五〇주년 기념 백제문화 학술회의록「百濟文化」七·八合輯, 公州師範大學附設 百濟文化研究所

⑫ 朝鮮總督府「朝鮮古蹟圖譜」四冊(統一新羅時代) P. 四〇七 참조

⑬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앞글」도판 20·21 참조

⑭ 子房의 크기는 時代의 하강과 비례한다. 초기의 蓮華紋瓦當의 子房은 작으며 시대가 하강함에 따라 자방이 커지며 그 주위도 강식을 가하게 된다.



(圖10) 皇龍寺出土蓮華紋瓦當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연구원)